



豚자가라사대... 환절기만 되면 풀치 아프신 분!

3월엔 양돈장에서 특별히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띠~ 양돈장 일이라는 게 어디 매 월별로 딱딱 끊어지는 일인가? 그냥 하던 그대로 하면 되쥬! 영 미덥지 않으면 이전 10여 년간 나왔던 여러 가지 양돈 잡지들의 3월호를 주욱-허니 살펴보시지.



황운재 팀장
영동양돈농협 수의팀

다들 환절기에 온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조석 간에 일교차 충격을 피하시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고, 봄철 불청객 황사가 농장에 무단 침입할라치면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든가 말든가 하시고, 구제역 등이 엄청 신경 쓰이게 하니깐 소독기 모터가 별경게 달아오르도록 이 구석 저 구석 소독약으로 도배하시고... 등등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이미 다 적혀있네요. 그러니 여기에다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만 그래도 그냥가면 섭섭하니 약간 다른 눈높이에서 입장 설을 풀어 볼랍니다.

돼지의 질병 중 대부분은 계절에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특별한 몇 가지는 우리나라 계절에 맞춤형으로 발생하기를 고집합니다. 특히 환절기로 정의할 수 있는 3월에는 이유자돈 뇌막염이나 기타 기회주의적인 질병들이 농장별로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농장별'로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는 환절기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양돈장에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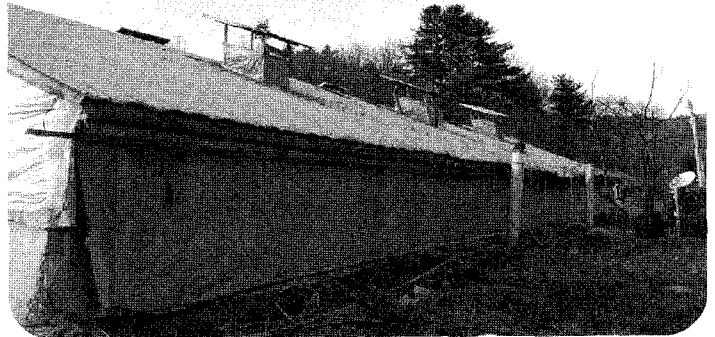
런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로 풀어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환절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질병이 비온 뒤 죽순이 튀어나오듯 튀어나오는 농장이라면 농장의 돈사가 환절기의 특징적인 기후변화를 적절하게 완충시키지 못하거나 관리자의 환절기 사양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절기는 이름 그대로 계절이 바뀌는 기간으로 심한 일교차, 심한 바람, 건조, 황사 등으로 요약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사양가 여러분이 키우는 돼지들도 잘 아는 얘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절기의 특성이 우리농장에 줄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부드럽게 벗어나느냐의 문제에 가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지요. 돈사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 우선 '기회주의적인 질병'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 보지요.

'기회주의적인 질병'의 선두주자로는 단연코 이유자돈뇌막염을 들 수 있습니다. 잘 이유된 자돈들이 어느 날 눈알이 사팔뜨기처럼 한쪽으로 몰리거나 안구진탕(눈동자가 좌우로 사정없이 왔다갔다 하는 증상), 옆으로 누워 자전거 타기,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걸어 다니는 선회운동 등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죽게 되는 질병인데 일종의 연쇄상구균이 잠복

해 있다가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돼지에게 가해지면 튀어나오는 질병입니다. 물론 이 질병은 시기만 놓치지 않는다면 폐니실린 계열 등 잘 알려진 항생제의 사용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만 문제는 발생 후 치료보다는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이 '기회주의적인 질병'들은 그야말로 농장에 고정간첩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



▲ 잘못된 윈치커텐은 환절기의 돈사 환기관리를 어렵게 한다.

게 은밀히 숨어 있다가 '어떤 기회 - 스트레스 요인'이 가해지면 삭~ 튀어나와서 돼지 몇 마리를 해치우고는, 그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하면 수면 아래로 조용히 사라지는 참으로 드런 놈들이라는데 있지요.

이유자돈 뇌막염이 그렇고 글래서씨병이나 흥막폐렴 등도 이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농장에서 이런 질병 때문에 주기적으로 고생한다면 - 특히 환절기에 더욱 그렇다면 약이나 백신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농장에서는 환절기에 어떤 부분이 돼지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런 질병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하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기회주의적인 놈들한테는 기회를 주지말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좋아하는 '기회'로는 대표적으로 셋바람 스트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 원인으로는 돈사 구조상의 문제로 셋바람을 막지 못하는 딱한 경우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윈치커텐이 아랫부분에서부터 열려 올라가게 되어있는 참으로 골 아픈 경우인데 봄 날씨는 대낮엔 어지간히 온도가 올라가서 윈치커텐을 좀 열어 주었다가 바람이 불

거나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져서 아주 약간만 열어 두려 하는데 그 열리는 부분이 돈사 벽면의 가운데이니 돈사 안으로 들어 온 바람이 돼지에게 직접 영향을 주게 되어 바로 이것이 셋바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돈사는 돼지 값 좋을 때 얼른 윈치를 바꾸는 것이 무병장수의 지름길이 되겠지요.

또 하나, 요즘은 이유자돈사를 컨테이너형 돈사나 이와 유사하게 잘 구획된 돈사에 음압식 기계환기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낮에는 적온기 팬을 가동하면서 입기용 창문도 적당히 열어 놓아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상황에 맞추어 입기구와 팬을 관리해 주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관리가 미숙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 돈사로 과도하게 입기되는 공기는 그대로 셋바람으로 작용해서 자돈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에서 말씀드린 질병 등으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한 기계환기식 돈사를 운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돈의 일령별 적온대와 우리 돈사에 맞는 저온기 및 적온기의 환기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돈사에 설치되어있는 배기 팬의 용량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돈**